

勞 動 經 濟 論 集  
 第27卷(2), 2004. 8, pp.139~159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진로 결정요인 분석

이성희\* · 원종욱\*\*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제대한 군인의 사회에서 재취업률은 최근 들어 연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군비축소에 따른 국방인력 감축까지 고려한다면 제대군인의 실업문제는 매우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 본 연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후 계량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은 군복무 기간이 더 길고, 계급도 높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제대 후 첫 직장탐색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 사람이 여타 지역 근무자에 비해 직장탐색 기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제대군인 취업률, 직업보도교육, 다중로짓

### I . 머리말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9%로 2001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

투고일: 2004년 5월 8일, 심사일: 2004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8월 19일

\*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shlee@kma.ac.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wonjw@kihas.re.kr)

9.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또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문제, 그 중에서도 재취업에 관한 문제이다. 군대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제대한 군인의 사회에서 재취업률은 최근 들어 연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군비축소에 따른 국방인력 감축까지 고려한다면 제대군인의 실업 문제는 매우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군인 사회연착륙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장교, 부사관 구분 없이 대다수의 제대군인들이 연령과다, 정보 부족, 준비 부족 등으로 사회에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직업보도교육을 포함한 취업지원 시스템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sup>1)</sup>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근거에는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면이 있다.

제대군인 실업 문제에 대해 그간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제대군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아울러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군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으로 여겨진다. 최근 들어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취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sup>2)</sup>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응답자가 느끼는 요인들과 실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대군인의 사회 재취업은 구직자 본인들의 다양한 직업탐색 활동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탐색 활동의 성과에는 제대군인 본인의 나이, 학력과

1)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및 군직업보도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과 정부 산하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 원종욱·이성희·정동욱(2003), 김두열·오세철(2003), 최광표(2003) 등 최근 몇 차례 발표된 정책보고서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연구가 없었다.

같은 개인적 속성을 비롯하여 군에서의 경력, 가족환경 그리고 신문, 인터넷,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직업탐색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Rees(1966)는 폭 넓은 취업정보를 얻는 데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공식적인 방법이 효과적인 반면에, 특정 직장에 대한 깊이 있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친지 등을 통한 비공식적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 주장하였다. Granovetter (1974) 역시 특정 취업정보를 얻는 데는 공식적인 방법보다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더욱 고급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직업탐색에 대한 비공식적 방법의 우월성 가설을 입증하는 많은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며(Kim, 1996),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병훈(2002), 류기철(2001), 홍성우·양채열(1999) 등에 의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효과적인 보편적 직업탐색 방법이 군대라는 매우 특수한 직종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제대한 군인들이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장기복무 후 사회정착 과정에서 제대군인들의 경제활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이내에 전역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5,0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한 후, 본고의 계량 분석 대상으로 적합한 응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으로 상당기간 복무한 후 제대하는 군인들의 진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자영업을 시작하는 계층, 봉급생활자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계층, 그리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multinomial logit model로 분석하였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진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과연 제대 후 첫 직장을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과 자영업을 시작한 계층을 제외한 봉급생활자로 진로를 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uncensored cox-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의 순서는 제II장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제III장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이용하여 제대군인의 전역 후 사회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분석한다. 그리고 제IV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설문 분석과 계량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수요조사

### 1. 취업 현황

군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전역한 인원 및 취업인원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1998년도까지만 해도 40%를 상회하던 취업비율(취업인원/전역인원)이 1999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2년도에는 불과 27%에 그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전반기 현재 11.8%라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사관들의 취업비율은 장교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장기복무 전역자들의 취업경로는 주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주로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 용역연구관 등의

<표 1> 장기복무 제대군인 계급별 취업현황

		전 계	장 군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준사관	부사관
2003년 전반기	전역인원	1,649		118	186	223	214	174	734
	취업인원	195		15	15	89	47	4	25
	비율(%)	11.8		12.7	8.1	39.9	22.0	2.3	3.4
2002년	전역인원	3,153	63	189	433	652	309	286	1,221
	취업인원	858	8	49	110	282	169	32	208
	비율(%)	27.0	12.7	25.9	25.4	43.3	54.7	11.2	17.0
2001년	전역인원	2,986	60	224	336	777	254	265	1,070
	취업인원	832	6	39	95	292	171	16	213
	비율(%)	28.0	10.0	17.4	28.3	37.6	67.3	6.0	19.9
2000년	전역인원	2,671	75	130	242	380	272	380	1,192
	취업인원	751	3	61	79	305	134	28	141
	비율(%)	28.0	4.0	46.9	32.6	80.3	49.3	7.4	11.8
1999년	전역인원	3,718	68	173	305	726	342	515	1,589
	취업인원	1,103	10	66	123	447	224	24	209
	비율(%)	30.0	14.7	38.2	40.3	61.6	65.5	4.7	13.2
1998년	전역인원	3,100	88	188	345	834	318	274	1,053
	취업인원	1,306	14	111	68	241	85	12	129
	비율(%)	42.0	15.9	59.1	19.7	28.9	26.7	4.4	12.3

자료: 국방부 인사복지국(2003).

관련 직종을 알선 또는 채용하고 있으며, 각 군 본부에서는 산하 복지근무단 근무요원을 채용하고 민간업체에 취업 추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지방보훈청 산하 제대군인 취업상담센터 등을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해 국가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사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의무고용제도에 의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sup>3)</sup>

## 2. 취업지원 수요조사

먼저 설문조사 대상은 <표 2>에서 보듯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이내 제대한 장기복무자 15,886명 중 연락 가능한 사람 중 군별·계급별 분포를 이용하여 5,00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작년 10월 12일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11월 9일까지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 기간 한 달간 회수된 조사표는 총 541개로 발송된 설문지의 약 11%에 해당한다. 회수된 설문지의 군별 분포는 모집단이나 발송 대상 표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분석상 편의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회수된 응답자의 군별 분포는 육군 443명(81.9%), 공군 66명(12.2%), 그리고 해군 32명(5.9%)이다.

<표 2> 모집단, 선정 표본, 최종 응답자의 군별 분포

(단위: 명, %)

	육 군	해 군	공 군	전 체
모 수	11,711 (73.7)	1,995 (12.6)	2,176 (13.7)	15,882 (100.0)
표 본	4,154 (83.1)	319 ( 6.4)	527 (10.5)	5,000 (100.0)
응답자	443 (81.9)	32 ( 5.9)	66 (12.2)	541 (100.0)

주: 표본은 전체조사대상자 중 전화확인가능대상자 3,270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임.

설문조사는 크게 군 경력부문, 개인 및 가구특성 조사부문 그리고 경제활동부문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군 경력부문에서는 전역 당시 연령, 군, 계급, 주특기, 복무기간, 최장 근무지 등의 항목이 있고, 개인 및 가구특성 조사부문은 주거 현황, 자산 및 부채, 장애나 질병 보유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부문에는 전

3) 일반 업체를 제외한 군관련 직위 중에서는 예비군 지휘관이 2003년 전반기 기준 약 5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상계획관, 군무원, 복지단 근무원 등으로 채용되고 있다.

역 후 취업 및 창업 과정,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군에서 제공하는 직업보도 교육에 관한 내용,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계급별 분포는 <표 3>에서 보듯이 영관급 이상이 342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평균 복무기간은 영관급이 25년, 위관이 14년, 그리고 부사관이 31년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대상자의 계급별 분포

(단위: 명, %)

	영관 (소령~대장)	위관 (소위~대위)	부사관 (하사~준위)
모 수	6,611 (44.5)	1,547 (10.5)	6,686 (45.0)
샘 플	3,472 (69.4)	348 ( 7.0)	1,180 (23.6)
응답자	342 (63.2)	28 ( 5.2)	171 (31.6)

한편,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소득은 설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한 금액이며, 본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군인 연금을 합한 총소득이다. 영관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300만~500만원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44.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500만~1,000만원이 23.8%, 200만~300만원이 21.8%로 조사됐다. 부사관의 경우는 200만~300만원이 3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0만~200만원, 300만~500만원이 23.4%순이었으며, 위관은 200만~300만원과 300만~500만원이 32.1%로 같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 금액은 군인연금을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이보다 일반적으로 2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제대 후 재취업을 하는 데 교육수준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영관급은 83.1%, 위관의 경우는 78.6%인 반면, 부사관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9.5%에 불과하여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대 후 경제활동을 크게 자영업과 근로자로 구분할 경우, <표 5>에서 보듯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영관급이 44.4%, 위관이 42.9%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부사관은 15.9%만이 상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시직 비중이 13.5%로 다른 계급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영업의 경우, 영관급의 비중은 13.0%, 부사관은 9.4%(고용주포함)인 반면 위관장교 출신

〈표 4〉 계급별 최종 학력 분포

(단위: %(명))

	영관	위관	부사관
전체(N)	100.0(339)	100.0( 28)	100.0(169)
미취학	-	-	-
무학	0.3	-	0.6
초등학교	-	-	1.8
중학교	-	-	13.0
고등학교	8.0	7.1	66.9
전문대	8.6	14.3	8.3
대학교	44.5	64.3	7.7
대학원	38.6	14.3	1.8

〈표 5〉 계급별 제대 후 주요활동

(단위: %(명))

	영관	위관	부사관
전체(N)	100.0 (338)	100.0 ( 28)	100.0 (170)
비해당	14.8	32.1	7.1
상용직임금근로자	44.4	42.9	15.9
임시직임금근로자	6.5	3.6	13.5
일용직임금근로자	0.6	10.7	7.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6	-	0.6
고용주	0.9	-	8.8
자영업자	12.1	3.6	0.6
무급가족종사자	0.3	-	25.3
직장없이 구직활동 중	12.4	7.1	7.6
직장없이 구직활동 포기	4.1	-	3.5
가사 담당(구직의사 없음)	1.2	-	3.5
보육으로 일할 수 없음	-	-	-
간병으로 일할 수 없음	-	-	-
연령이 높아서 일할 수 없음	0.3	-	-
장애, 질환 등으로 일할 수 없음	0.9	-	1.8
학업 및 진학 준비	0.9	-	0.6

은 3.6%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교 출신 제대군인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용직 근로자인 반면 부사관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급여 없이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대 후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은 영관급이 63.9%로 가장 높고, 위관이 60.8%, 부사관은 46%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두고 볼 때 장교 출신 제대군인들의 취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특히 부사관 출신 제대군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1>에서 설명한 계급별 취업 현황과 <표 4>에 나타난 계급별 최종 학력 분포, 그리고 <표 5>의 계급별 경제활동 유형 및 본고에 신지 않은 설문분석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부사관들은 학력수준이 낮고 공인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고용되는 등 전형적인 저기능 근로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sup>4)</sup> 한편 소득활동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포기하였거나 구직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한 경험

(단위: %(명))

	영관	위관	부사관
전체(N)	100.0(337)	100.0( 28)	100.0(166)
있다	34.1	35.7	28.3
없다	65.9	64.3	71.7

현재 정부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사회취업 열악성을 감안하여 전역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단기간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은 <표 6>에서 보듯이 교육참여자 비율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60~70%가 군복무 중 군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해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제대 후 사회에서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표 7>에서 보듯이 계급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제대군인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기술이나 자격증 부족, 경력 부족, 높은 연령, 주변의 도움 부족, 그리고 복무기간 중 준비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장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부사관들조차 학력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4) 설문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인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비중은 위관급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관급이 31%, 부사관은 2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제대후 봉급생활자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월평균임금은 영관급 194만원, 위관급 132만원, 그리고 부사관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저기능 근로자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고상원(2000) 참조.



<표 7> 제대 후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

(단위: %(명))

전체(N)	영관					위관					부사관					전체(N)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영관	위관	부사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1.3	7.3	14.6	39.1	25.6	7.7	-	15.4	57.7	19.2	6.0	2.3	10.5	54.9	26.3	100.0 (302)	100.0 (26)	100.0 (133)
학력이 낮아 구직이 어렵다	42.8	42.8	7.6	4.0	2.9	37.5	12.5	29.2	20.8	-	16.1	29.8	22.6	25.0	6.5	100.0 (278)	100.0 (24)	100.0 (124)
해당기술 또는 자격증이 없어 구직이 어렵다	15.8	20.6	13.1	35.4	15.1	16.7	12.5	7.7	37.5	16.7	7.4	22.1	8.2	43.4	18.9	100.0 (291)	100.0 (24)	100.0 (122)
경력이 없어 구직이 어렵다	16.0	15.6	6.6	42.0	19.8	12.0	12.0	4.0	52.0	20.0	5.7	18.7	10.6	44.7	20.3	100.0 (288)	100.0 (25)	100.0 (123)
연령이 높아 구직이 어렵다	10.3	7.0	7.0	41.0	34.7	11.5	3.8	3.8	46.2	34.6	5.7	6.4	5.0	52.9	30.0	100.0 (300)	100.0 (26)	100.0 (140)
질환이 있어 구직이 어렵다	60.5	30.5	3.0	4.1	1.9	47.8	34.8	-	17.4	-	37.3	32.7	9.1	13.6	7.3	100.0 (266)	100.0 (23)	100.0 (110)
추천이나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렵다	12.7	14.4	14.1	38.1	20.6	8.0	8.0	12.0	44.0	28.0	5.4	12.3	8.5	50.8	23.1	100.0 (291)	100.0 (25)	100.0 (130)
복무기간중 취업준비를 미리 하지 않아 어렵다	9.6	12.6	13.0	40.5	24.3	7.4	3.7	11.1	63.0	14.8	6.2	14.6	8.5	46.2	24.6	100.0 (301)	100.0 (27)	100.0 (130)
전혀 어려움이 없다	41.9	29.2	12.0	13.9	3.0	41.7	54.2	4.2	-	-	37.7	35.8	10.4	16.0	-	100.0 (267)	100.0 (24)	100.0 (106)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8> 직장 또는 사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고용형태

(단위: %(명))

	영관	위관	부사관
전체(N)	100.0(280)	100.0( 27)	100.0(124)
자영업	19.3	11.1	24.2
직장	80.7	88.9	75.8

주: 이 항목은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최초 경험 응답자들의 빈도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험은 제외).

제대 후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을 크게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로 구분할 경우 <표 8>에서 보듯이 제대 후 최초 경제활동을 봉급생활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영관급의 경우 80.7%, 위관은 88.9% 그리고 부사관은 75.8%로 각각 조사되었다. 따라서 창업보다는 직장생활로 사회 정착을 시작하는 제대군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대 후 최초 창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영관급의 경우 제대 후 5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반면, 위관은 1개월, 부사관은 6개월 정도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대 후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영

〈표 9〉 첫 직장/개인사업의 직업활동 기간

(단위: 개월)

	영 관		위 관		부사관	
	전역 후 기간	종사기간	전역 후 기간	종사기간	전역 후 기간	종사기간
전체(N)	-	-	-	-	-	-
자영업	5.2	20.2	1.3	6.0	6.4	26.4
직 장	5.9	23.1	5.9	12.3	7.3	15.4

주: 이 항목은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중 최초 경험 응답자들의 빈도임(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험은 제외).

관급과 위관은 6개월 정도 후에 첫 직장을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사관은 7개월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첫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첫 직장이나 사업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영업의 경우 영관급은 평균 20개월, 위관은 6개월, 부사관은 2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장생활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관급은 약 23개월, 위관은 12개월, 부사관은 15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경우 모두 위관장교 제대군인의 평균 종사기간이 다른 계급집단에 비해 조금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 Ⅲ. 계량분석

앞의 제Ⅱ장에서 이루어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에 의하면, 전역 당시의 계급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과도한 연령, 취업정보의 부족, 그리고 복무 기간 중 본인의 준비부족 등을 사회에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중요한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대군인 본인들이 느끼는 애로점과 실제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과연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까?

앞 장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내용을 이용하여 여기서는 제대군인의 전역 후 사회에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수의 제대군인이 봉급생활자로 사회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연 제대 후 첫 직장을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본다. 분석

대상은 설문조사 응답자 541명 중 분석 대상 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485명으로 선정하였다.

## 1. 전역 후 경제활동 진로결정 요인분석

제대군인의 전역 후 진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자영업을 시작하는 계층, 봉급생활자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계층, 그리고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계층 등이다.<sup>5)</sup>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제대 후 경제활동 유형

type	Freq.	Percent.	Cum.
0	330	68.04	68.04
1	75	15.46	83.51
2	80	16.49	100.00
Total	485	100.0	

<표 10>에서 type은 전역 후 최초 경제활동 진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0은 봉급생활자로 전환되는 계층, 1은 자영업을 시작한 계층, 그리고 2는 소득활동을 포기한 계층을 나타내고 있다. 전역 후 봉급생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약 6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표 11>은 분석 대상 변수의 기초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분석 대상자의 전역한 시점에서 평균적인 군복무 기간은 26년이며, 나이는 50.3세,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는 4,260만원 등임을 알 수 있다.

<표 12>는 기준집단이 0, 즉 '봉급생활자로 진로를 결정한 계층'이고, 첫 번째 결과는 '자영업을 시작한 계층'(1집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득활동을 포기한 계층'(2집단)을 기준집단인 0집단과 비교한 결과이다.

5)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계층 중 다수는 20년 이상 군복무를 한 후 제대하여 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표 11〉 분석 대상 변수의 기초통계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career	485	26.05629	6.370164	10	42
age	485	50.33402	5.9924	33	65
edu	485	6.498969	1.278598	2	8
asset	485	4.267113	11.65482	0	200
search	485	10.15722	14.10784	0	96
salinc	485	350.7052	333.2627	0	1200
trainp	485	1.686598	.4643553	1	2
mil	485	1.296907	.6699657	1	3
rank	485	3.282474	1.072092	1	5
job	485	1.548454	.7634623	1	3
colege	485	.0350515	.1841	0	1
milprog	485	.0865979	.2815354	0	1
infod	485	.6020619	.4899779	0	1
licend	485	.4329897	.4960009	0	1
careed	485	.5030928	.5005067	0	1
aged	485	.6783505	.4675916	0	1
dises	485	.0804124	.2722113	0	1
recomd	485	.5175258	.5002087	0	1
prepad	485	.556701	.4972875	0	1
type	485	1.175258	.8861924	0	3
stincome	485	44.33608	91.75525	0	700
military	485	.8226804	.3823333	0	1
cregn	485	.3958763	.489543	0	1
sregn	485	.1072165	.3097077	0	1
metregn	485	.1835052	.3874798	0	1

주: career-군복무기간(년), age-전역시 나이(세), edu-교육수준(1:미취학, 2:무학, 3:초등, 4:중학, 5:고등, 6:전문대, 7:대학, 8:대학원), asset-자산규모(천만원), search-구직기간(월), salinc-구직후 급여수준(만원), trainp-직업보도교육(1:참여, 2:불참), mil-출신 군(1:육군, 2:해군, 3:공군), rank-전역시 계급(1:부사관, 2:준위, 3:위관, 4:영관, 5:장군), job-병과 및 직능(1:행정 및 특수, 2:기술, 3:전투), colege-취업을 위해 대학진학(0:아니오, 1:예), milprog-직업보도교육 참여(0:아니오, 1:예), infod-취업정보 부족(0:아니오, 1:예), licend-자격증이 없어 취업곤란(0:아니오, 1:예), careed-경력이 부족해 취업곤란(0:아니오, 1:예), aged-연령이 많아 취업곤란(0:아니오, 1:예), dises-장애·질환(0:아니오, 1:예), recomd-주변도움 부족으로 취업곤란(0:아니오, 1:예), prepad-준비 부족으로 취업곤란(0:아니오, 1:예), type-제대후 진로(0:자영업, 1:봉급생활, 3:소득활동 포기), stincome-배우자 소득(만원), military-기술군(0:해군·공군, 1:육군), cregn-최장 복무지역이 광역시(0:아니오, 1:예), sregn-최장 복무지역이 서울(0:아니오, 1:예), metregn-최장 복무지역이 지방지역(0:아니오, 1:예).

〈표 12〉 진로결정 요인분석 추정식

Type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1						
career	-.0224906	.0228477	-0.984	0.325	-.0672713	.0222901
rank	-.1730159	.1790764	-0.966	0.334	-.5239992	.1779675
job	-.0616854	.1887079	-0.327	0.744	-.4315461	.3081752
trainp	-.2306913	.2813146	-0.820	0.412	-.7820578	.3206751
salinc	.0013605	.0019056	0.714	0.475	-.0023745	.0050955
asset	.0076543	.0118086	0.648	0.517	-.01549	.0307986
stincome	.0029841	.0012112	2.464	0.014	.0006101	.005358
edu	.0137236	.1538272	0.089	0.929	-.2877721	.3152193
military	-.008852	.4077594	-0.022	0.983	-.8080457	.7903416
infod	-.4435194	.3283889	-1.351	0.177	-.1.08715	.200111
licend	.0353766	.3157323	0.112	0.911	-.5834474	.6542006
aged	.0776774	.333574	0.233	0.816	-.5761157	.7314704
recomd	.2041121	.3146474	0.649	0.517	-.4125854	.8208097
prepad	.2186528	.3253863	0.672	0.502	-.4190927	.8563982
cregn	.0967046	.3003534	0.322	0.747	-.4919772	.6853864
sregn	-.4703892	.6621728	-0.710	0.477	-.1.768224	.8274457
metregn	.2378333	.5170788	0.460	0.646	-.7756225	1.251289
dises	.6322118	.4710667	1.342	0.180	-.2910621	1.555486
_cons	-.3108464	1.415956	-0.220	0.826	-.3.08607	2.464377
2						
career	.1063232	.0270652	3.928	0.000	.0532763	.1593701
rank	.3902972	.1950505	2.001	0.045	.0080052	.7725893
job	.1323592	.1784886	0.742	0.458	-.2174719	.4821904
trainp	-.0779459	.2888115	-0.270	0.787	-.6440059	.4881142
salinc	-.0005365	.0022734	-0.236	0.813	-.0049922	.0039192
asset	.0091986	.0135607	0.678	0.498	-.0173798	.035777
stincome	-.0020514	.0020537	-0.999	0.318	-.0060765	.0019738
edu	-.1146221	.1474389	-0.777	0.437	-.4035972	.1743529
military	-.4273608	.3606093	-1.185	0.236	-.1.134142	.2794204
infod	.0799108	.3409464	0.234	0.815	-.5883319	.7481536
licend	-.1026463	.3149816	-0.326	0.745	-.719999	.5147064
aged	-.8630986	.3282383	-2.629	0.009	-.1.506434	-.2197634
recomd	.4074974	.3312409	1.230	0.219	-.2417229	1.056718
prepad	.4601191	.3462177	1.329	0.184	-.218455	1.138693
cregn	-.2449972	.3223812	-0.760	0.447	-.8768527	.3868583
sregn	-.9608428	.6228794	-1.543	0.123	-.2.181664	.2599784
metregn	.1653905	.4691374	0.353	0.724	-.7541018	1.084883
dises	1.131823	.4253882	2.661	0.008	.2980774	1.965569
_cons	-4.464444	1.441475	-3.097	0.002	-.7.289683	-1.639206

(Outcome type==1 is the comparison group)

Multinomial regression

Number of obs = 485

LR chi2(36) = 65.71

Prob > chi2 = 0.0018

Log likelihood = -378.38041

Pseudo R2 = 0.0799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설문조사 문항에 맞추어 크게 군 경력 변수,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 그리고 경제활동 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군 경력 변수에는 전역한 시점을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을 나타내는 career, 계급을 나타내는 rank, 병과 및 직능을 나타내는 변수로 job,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trainp, 그리고 기술군을 나타내는 military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에는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salinc, 자산규모를 나타내는 asset, 배우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stincome,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edu,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인지 여타 지역인지를 나타내는 cregn,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지 여타 지역인지를 나타내는 sregn,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전방 지역이었던지 여타 지역인지를 나타내는 metregn,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dises 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변수로는 취업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하였는지를 나타내는 infod, 취업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어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나타내는 licend, 취업 과정에서 나이가 많아 취업하는 데 어려웠는지를 나타내는 aged, 취업 과정에서 주위에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려웠는지를 나타내는 recomd, 취업 과정에서 준비를 미리하지 않아 어려웠는지를 묻는 prepad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다.<sup>6)</sup>

먼저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과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이 평균적으로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 실지는 않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창업을 하는 경우 공동 창업보다는 개인 창업이 대부분이며(영관: 84.0%, 위관: 88.9%, 부사관: 88.6%), 평균 창업비용 역시 소규모(영관: 8,788만원, 위관: 4,395만원, 부사관: 7,469만원)로, 창업을 통한 월평균 사업소득이 영관급이 297만원, 위관이 173만원, 부사관이 214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만 창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외 군 복무기간, 전역시 계급, 참모 직능, 직업보도교육 이수 여부, 자산 및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집단과 봉급생활자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이 봉급생활을 선택한 계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더 길고, 계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직 과정에서 나이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집단이 평균적으

6) <표 7>의 응답에서 3, 4, 5는 '예'로, 그리고 1, 2는 '아니오'로 처리하였다.

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봉급생활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나이가 많아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는 <표 7>에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내세우는 어려움으로, 제대군인 본인이 생각하는 경력직 직위에 대한 취업이 신입사원 취업보다는 어렵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취업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경우라면 이러한 어려움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복무시 참모 직능, 직업보도교육 이수 여부, 자산 및 소득수준, 교육수준, 출신 군, 취업정보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취업준비 여부, 근무 지역 등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이 실제 취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는 제Ⅱ장의 설문분석 <표 6>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격증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육군보다는 해군이나 공군 출신이 사회에서 취업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은 실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sup>7)</sup>

## 2.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요인분석

다음으로 제대 후 첫 직장을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과연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과 자영업을 시작한 계층을 제외한 봉급생활자로 진로를 정한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직업을 구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uncensored cox-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제대 후 첫 직장을 찾는 데 소요된 기간을 보면 <표 13>에서 보듯이 전체 대상자 330명 가운데 전역 후 바로 새로운 직장을 찾은 사람이 58명, 1개월 이내가 103명, 3개월 이내가 158명, 그리고 6개월 이내가 221명 등으로 나타나, 취업을 한 경우 이 기간 내에 약 70%의 제대군인이 직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교육수준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 사이에 매우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Pencavel(1986) 참조.

〈표 13〉 첫 직장 탐색기간의 분포

search	Freq.	Percent	Cum.
0	58	17.58	17.58
.25	1	0.30	17.88
1	52	15.76	33.64
2	24	7.27	40.91
3	31	9.39	50.30
4	10	3.03	53.33
5	9	2.73	56.06
6	44	13.33	69.39
7	1	0.30	69.70
8	15	4.55	74.24
9	1	0.30	74.55
10	4	1.21	75.76
11	5	1.52	77.27
12	29	8.79	86.06
13	2	0.61	86.67
14	4	1.21	87.88
15	3	0.91	88.79
16	7	2.12	90.91
17	2	0.61	91.52
18	4	1.21	92.73
20	3	0.91	93.64
21	2	0.61	94.24
22	1	0.30	94.55
24	10	3.03	97.58
26	1	0.30	97.88
30	1	0.30	98.18
33	1	0.30	98.48
36	3	0.91	99.39
47	1	0.30	99.70
55	1	0.30	100.00
Total	330	100.00	

앞에서 설명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첫 직장을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한 결과 <표 14>에서 보듯이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군 전역 당시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직장탐색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 사람이 여타 지역 근무자에 비해 첫 직장의 탐색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전역 후 제대군인이 취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군관련 직종에 대해 국방부 및 각군 본부가 직접 채용을 하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예비군지휘관, 비상계획관, 군무원 및 산하기관 군무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상당부분은 군과 관련이 있는 업체 및 직위로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의 취업알선기구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을 직접 채용하거나, 또는 이들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기준이 물론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군복무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이들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 경우 별도의 직업보도교육은 불필요하게 된다. 즉,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군 전역 당시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직장탐색 기간이 단축되기 마련이다.

<표 14> 직업탐색기간에 대한 cox-hazard model 추정식

Type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career	-.0268942	.0103479	-2.599	0.009	-.0471758	-.0066127
edu	.1319129	.0672267	1.962	0.050	.0001509	.2636748
stincome	.0000691	.000746	0.093	0.926	-.0013931	.0015313
asset	-.0098228	.0083287	-1.179	0.238	-.0261467	.0065011
salinc	.0003287	.0004607	0.713	0.476	-.0005743	.0012317
trainp	-.2627429	.1287622	-2.041	0.041	-.5151121	-.0103736
rank	-.1367789	.0842319	-1.624	0.104	-.3018704	.0283127
job	-.0632289	.083441	-0.758	0.449	-.2267701	.1003124
infod	.0773456	.1415	0.547	0.585	-.1999893	.3546805
licend	-.0667919	.1469644	-0.454	0.649	-.3548369	.221253
aged	-.2475302	.1471515	-1.682	0.093	-.5359418	.0408815
recomd	-.1360044	.1439688	-0.945	0.345	-.4181781	.1461693
prepad	-.1863534	.1513045	-1.232	0.218	-.4829049	.110198
colege	-.3794435	.3241399	-1.171	0.242	-1.014746	.2558591
milprog	-.0537507	.1985367	-0.271	0.787	-.4428756	.3353742
careed	-.0057437	.1524563	-0.038	0.970	-.3045525	.2930651
internt	-.0658362	.1245888	-0.528	0.597	-.3100258	.1783534
sregn	.6094985	.3073953	1.983	0.047	.0070149	1.211982
metregn	-.1964085	.2553668	-0.769	0.442	-.6969182	.3041012
dises	-.0002102	.273936	-0.001	0.999	-.5371149	.5366945

Cox regression -- Breslow method for ties

Entry time 0

Log likelihood = -1604.0171

Number of obs = 330

LR chi2(20) = 36.82

Prob > chi2 = 0.0123

Pseudo R2 = 0.0113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 제대군인이 여타 지역 근무자에 비해 첫 직장의 탐색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임금수준의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조정 과정이 큰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의 기대치 역시 높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오래 근무한 경우, 특히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생활비를 고려한 기대임금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직장탐색 기간은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전역시 계급, 참모 직능, 자산 및 소득수준, 출신 군, 취업정보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연령, 취업준비 여부 등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맺음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재취업률이 30%를 밑도는 우리의 현실은 이 분야에 대한 그간 학계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군인연금을 포함한 소득보장정책과 같이 여러 형태로 구현될 수 있지만 그 어떤 지원정책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제대군인 취업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제대군인 본인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은 물론, 나아가 국방인력정책과 국가 인적자원관리정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군인의 사회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그간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대부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요소들이 실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지에 대한 계량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고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몇 가지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전역 당시의 계급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과도한 연령, 취업정보의 부족, 그리고 복무기간 중 본인의 준비 부족 등을 사회에 나와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중요한

애로사항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을 이용하여 제대군인의 전역 후 사회에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과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이 평균적으로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집단과 봉급생활자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이 봉급생활을 선택한 계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더 길고, 계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직 과정에서 나이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집단이 평균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봉급생활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다수의 제대군인이 봉급생활자로 사회에서 새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연 제대 후 첫 직장을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군 전역 당시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직장탐색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 사람이 여타 지역 근무자에 비해 첫 직장의 탐색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부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요소들, 즉 직업보도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군 경력 등과 같은 변수들이 실제 제대군인들의 경제활동 진로결정 과정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즉 직업보도교육, 자격증 취득 같은 제도를 현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이 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군 경력을 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취업정보 제공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상원. 「저기능 근로자의 고용창출」, 유경준 외,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pp. 430-462.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0.

- 국가보훈처. 『2002년도 보훈연감파일』. 서울: 국가보훈처, 2003.
- \_\_\_\_\_.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서울: 국가보훈처, 2003.
- 김두열·오세철. 「전직지원제도의 군내 적용방안」. 『한국군사』 17호 (2003. 9): 105-137.
- 류기철.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권 1호 (2001. 3): 207-230.
- 원종욱·이성희·정동욱. 『중·장기복무 전역자 직업능력개발체계 연구』.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3.
- 이병훈.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권 1호 (2002. 3): 1-21.
- 최광표. 「군 직업보도교육의 취업연계 강화방안」. 『학교-군-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방안』. 육군본부 세미나자료, 2003.
- 홍성우·양채열.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 - 광주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2권 1호 (1999, 6): 1-29.
- Fallick, Bruce C. "A Review of the Recent Empirical Literature on Displaced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0 (1) (1996): 5-16.
- Granovetter, Mark.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racts and Care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Kim, Joing-In. "Impact of Job Search Method and Effort on Search Outcomes." 『노사관계연구』 7권 (1996. 12): 241-263.
- Pencavel, J. "Labor Supply of Men: A Survey."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1, edited by Orley C. Ashenfelter and Richard Layard, pp. 3-102.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86.
- Rees, Albert. "Information Networks in Lab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56 (2) (1966): 559-566.

---

abstract

---

## Analysis on the Factors of Re-employment of Veterans After Long-term Military Service

Sung-Heui Lee · Jongwook Won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of retired military personnel who served more than ten years in Korea. Recently, the re-employment rate of veterans is less than 30%. Considering the reduction in military forces in future, this very low rate of re-employment may be one of important social and economic problem. Using a survey and econometric analyses, we generate several important results. First, spouses' income is higher in the group who chose to run their own business than in the group who decided to become salary workers. Second, those who gave economic activities had longer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higher ranks, and higher rate of being in bad health. Third, the longer the military service period is, the shorter the period of job search. And those who not taking the program of vocational guidance have short search period. If, however, one was more educated or one served longer in Seoul area, then she is more likely to have a longer search perio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important factors in government policies for veterans such as vocational guidance programs, information for employment, and military experience should be improved to be more oriented to the requirements of employers.

**Key words:** re-employment rate of veterans, the program of vocational guidance, multinomial logit model